

# 책의 축제, 혹은 사람의 잔치

## 제44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를 보고



책의 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독일 현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이 '프랑크푸르트 북메세'는 오랜 전통과 많은 국가들의 참여로 잘 알려진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축제로, 전세계 판권계약의 80%정도가 이곳에서 체결되거나 적어도 이와 관련된 상담이 진행되는 국제출판교역의 중심지이다.

올해의 도서전 역시 그같은 연원과 명성에 걸맞은 성황을 이루었는데, 주최측인 독일서적상출판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5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전시대 수가 2.2%포인트 줄긴 했으나, 총 12만5천여 평방미터의 전시면적에 103개국 8,236개사가 35만여종의 도서를 출판하여 펼친 책의 경연은 말 그대로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국가별로 보면, 주최국인 독일이 2,168사로 가장 많고, 영국 1,068사, 미국 679사, 프랑스 494사, 일본 118사 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협회를 중심으로 1백여 출판사가 331종 523책을 출판하여 모두 60여건의 도서 수출입 및 저작권 상담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서관, 금성출판사, 웅진출판사 등 몇몇 대형 출판사들은 개별 출판사 자격으로 참가, 각각 사별 전시대를 마련했다.

일주일 동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이 2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번 도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종이책의 여전한 강세 속에서 CD롬 등 전자책의 종류가 방대해지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 특히 산요, 소니 등 일본 업계에서 주력 상품으로 열성을 보였는데, 주최측은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뉴미디어 코너를 새로이 설치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1990), 스페인(1991)에 이어 올해의 '테마국'으로 선정된 나라는 중남미 최대출판국인 멕시코로서, 별도로 마련된 전시관에 멕시코의 전통문화와 유적, 사진, 도서 등이 전시돼 멕시코문화와 출판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눈길을 끌었다.

책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거의 난장에 가까운 유쾌한 활기를 전시회 기간 내내 내뿜었던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현장을 사진으로 살펴본다.

- ①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전시관 내부. 103개국 8236개사 35만여종의 도서가 총 전시면적 12만 평방미터의 전시관에서 선보였다.
- ② 독일의 출판사들이 밀집해 있는 6홀. 단순한 책의 전시장이러기보다는 책을 매개로 한 각종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상담과 먹고 마시는 일이 어우러져 보기 씩 좋은 흥청거림을 연출하고 있다.
- ③ 올해의 테마국으로 선정된 멕시코 전시관. 유리상자 속의 고문서를 특이한 조명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전시방법이 기발하다.
- ④ 출판협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한국 전시관. 331종 523책이 출판된 가운데 60여건의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업박람회에서 시장거래의 고유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많이 미흡했다는 것이 출판측의 자체 평가이기도 하다.
- ⑤ 독일과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참여를 보인 미국의 한 출판사 전시대.
- ⑥ 전시관 1층 로비에 마련된 간이 휴게소. 포스터를 이용한 킥막이와 조명이 예술적 풍격을 느끼게 한다.
- ⑦ 전시관 옥외에서 성황을 이룬 간이음식점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관람객들. 음식점들과 함께 각종 잡화점들이 들어서서 잔치 분위기를 북돋는 유쾌한 난장을 이루었다.

